

# 여수세계섬박람회장 기반 공사 11월 준공... 교통·숙박 고심

### 전시장 등 행사장 조성 본격 추진...개도에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 캠핑장 등 8월까지 대체 숙박시설 확충...항공·KTX 수송 체계 구축 계획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행사장 기반 공사가 오는 11월 준공된다.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에 따르면 시비 24억원을 투입해 작년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우두로 1181번지) 18만㎡ 규모의 주 행사장 부지에서 평탄화 작업 및 배수로 정비 작업이 진행된다.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전시장 등 행사장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섬박람회 특성을 살려 여수시 화정면 개도에 부 행사장을 마련하고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섬어촌 문화센터는 내년 9월까지 60억원을 들여 면적 780㎡ 부지에 2층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 1층은 전시 판매장이 들어서는, 2층은 주민 문화를 위한 시설 등이 배치된다.

섬박람회지원단은 주·부 행사장 준비 과정에서 박람회장 진입도로 및 주차 시설 등 교통 대책과 부 행사장 일원 숙박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부 행사장인 개도를 비롯해 관광지로 유명한 인근 금오도에 기존 숙박 시설 정비 및 마을회관, 홈스테이 등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나섰다.

지원단은 박람회 기간 개도와 금오도를 찾는 하루 최대 관광객이 720명, 1860명으로 예상하고 객실 확보, 홈스테이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박람회 부 행사장 대체 숙박 시설 적합 조사를 했으며, 8월까지 대체 숙박시설 확충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어촌 민박 재정비 지원사업도 병행해 청결하고 깨끗한 시설을 갖추고 홈스테이 가정을 사전에 지정하거나 섬마을 캠핑장을 조성해 불편 없고 즐길 수 있는 숙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 행사장이 위치한 돌산 진모지구 인근은 1일 최대 12만9000여명의 방문이 예상된다. 돌산지역의 호텔과 펜션 등 가용 숙박시설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주말 9322명, 주중 4864명의 주차면 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시주차장 8200여면의 추가가 검토되고 있다.

섬과 섬 사이는 원 스톱(one-stop)수송항로 개설 및 쾌속선이 도입된다. 수송선박은 여수엑스포항-남면 합구미항-개도 화산항을 수시로 왕복 운항하고 여객선사와 협의를 거쳐 기존 여객선의 운항 횟수도 증편될 예정이다.

일부 병목구간에 따른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행사장 진입도로 구간은 시내 권역과 돌산 권역으로 나눠 전광판, 교통 표지로 실시간 차량 분산에 나서고 항공, KTX,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관람객 수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섬박람회지원단은 이 외에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스토리텔링 기반 호핑투어 사업을 통해 섬과 섬을 이동하며 체험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섬투어와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볼런투어(Voluntour)를 남면 금오도와 황간도를 비롯해 화정면 개도, 낭도, 상화도, 화하도, 송여지도, 삼산면 거문도와 손죽도 등 10개 섬에서 진행한다. 하루 4시간 이상 종량제 봉투 20L에 각종 쓰레기를 모으면 볼런투어 활동으로 인정된다.

섬박람회의 준비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여수시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2개월간 펼쳐지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정부 및 전남도 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조감도.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상태 섬박람회지원단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여정이 착각 진행되고 있다"며 "주 행사장과 부 행사장의 기반 조성 마무리와

뒤이어 행사장 조성, 전시콘텐츠와 즐길 거리, 먹거리 도입 등을 위해 조직위원회와 함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즐거움이 '활짝' ...곡성 세계장미축제 오세요

### 섬진강기차마을 일원 내일 개막 세계 명품 장미 감상...공연 등 다채

'2024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17일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개막한다.

곡성군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장미다'(WE ARE ROSE)를 주제로 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22만9000명이 찾은 장미축제는 올해 섬진강기차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 곳곳으로 축제장을 넓혀 진행할 계획이다.

10만평(33만578㎡) 규모 섬진강동화정원과 곡성어린이도서관, 군민회관, 갤러리 107 등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정원은 7만5000㎡(2만 2687평)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서는 유럽 등 각지에서 온 세계 명품 장미를 감상할 수 있다.

축제는 별도 개막식 없이 '그대 모습은 장미' 노래에 맞춘 뮤지컬 공연으로 시작한다. 곡성군립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곡성 출신 바리톤 김기훈의 특별 초청 무대도 마련됐다.

올해 장미축제의 핵심어는 낭만(Romantic), 신남(Excitement), 흥(Delight)의 앞글자를 딴 'The RED'이다.

'더 로맨틱 로즈 콘서트'는 축제 첫날인 17일 열린다. 가수 린과 곡성 출신인 '미스트롯 3' 출연자 나영 등이 무대에 오른다.

18일 '더 로맨틱 로즈 블.로.썸' 공연에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부른 하이키와 곡성군 홍보대사 파스텔걸스가 출연하고, 뮤지컬 '로즈' 갈라와 '뮤지 워드 로즈' 첼로 공연이 이어진다.



'곡성세계장미축제'(17~26일)가 열리는 섬진강기차마을에서 방문객들이 형형색색 장미의 자태를 감상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19일 펼쳐지는 '더 익사팅 장미꽃 콘서트'에는 노라조, 군조크루, 곡성 육과 출신 한태현이 무대를 꾸민다.

평일 축제 기간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33개 팀과 문화 예술인, 곡성 출신 가수들이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토요일인 25일 열리는 '아모르 트루 투나잇'에서는 김연자, 문희숙, 곡성 출신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이수호가 축제의 밤을 달군다.

축제 마지막 날인 26일은 '더 딜라이트 로즈 갈라쇼'가 펼쳐진다. 곡성군 홍보대사 진시문과 수와진 밴드가 출연하며, '체리필터' 조유진이 신나게 축제를 마무리한다.

곡성군은 장미축제 기획공연으로 '게릴라 왈츠'

와 '신 장미풍류' 등 볼거리를 곳곳에 마련했다. 축제 기간 날마다 경품행사 '행운의 황금장미를 찾아라'를 진행하고 '장미'가 들어간 이름을 찾는 '전국 장미 소환'을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붉은색 옷을 입고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드레스 코드 레드'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한다. 지난 4월 문을 연 곡성 어린이도서관은 장미축제에 맞춰 다양한 공연과 실감형 동화체험을 마련했다.

한편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지난 2월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섬진강기차마을 입장료는 5000원이며, 축제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장권을 살 수 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람사르 사무총장, 세계 습지도시 첫번째로 '순천' 방문

### 무손다 뭉바 사무총장 한국 첫 방문 노관규 시장과 습지 보전 방안 논의

순천시는 무손다 뭉바 람사르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노관규 순천시장과 람사르 습지 도시 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손다 뭉바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 세계 습지 도시 가운데 순천을 가장 먼저 찾았다. 노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4차 람사르총회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무손다 뭉바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7월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15차 람사르총회 당사국 회의에 노 시장을 공식 초청했다.

노 시장은 지난해 동천의 환경부 '국가하천 승격'을 소개하며 람사르 습지와 도시 생태축 보호에 힘쓰는 순천의 사례를 설명했다.

람사르 대표단은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을 둘러본 뒤 스카이뷰브를 타고 동천과 순천만 일원을 탐방했다.

무손다 뭉바 사무총장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위해 순천만 전봇대를 밝히는 사례에 큰 관심을



노관규(맨 오른쪽) 순천시장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무손다 뭉바(맨 왼쪽) 사무총장과 람사르 습지 도시 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가졌다. 람사르 습지 도시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를 람사르사무국에서 인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개국 43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노관규 시장은 람사르 습지 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초대 상임의장을 맡았다.

무손다 뭉바 사무총장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를 위해 순천만 전봇대를 밝히는 사례에 큰 관심을 가졌다.

람사르 습지 도시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를 람사르사무국에서 인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개국 43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노관규 시장은 람사르 습지 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초대 상임의장을 맡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구례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 7월 행복가족복합센터 개소...어린이집 영어 체험비 지원

구례군이 오는 7월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문을 열고 어린이집 영어 체험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 친화도시' 기반을 다진다

고 15일 밝혔다. 구례읍 봉남리에 건립되고 있는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는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공공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키즈카페는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들이 미세먼지 등 걱정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이다. 구례군은 이와 더불어 시천체육공원에 자연 친화적 폼 카움 놀이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품앗이 공간이다. 지역 최초로 마련된 1호 공동육아 나눔 공간이다. 공간 조성에는 5600만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7월 운영 예정인 다함께 돌봄 거점센터 조성에

는 1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이곳은 방과 후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로 해소하는데 힘을 예정이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은 방과 후와 주말(토요일), 방학 중에도 학습지도·예체능 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구례군은 아동복지 시설 운영 외에도 연간 4억 5100만원을 들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 적응, 통·번역, 가족 단위 여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군은 연간 32억원을 들여 지역 어린이집 기능을 보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유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 육성 기금 4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7곳 원아들에게 영어 체험 특별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꿈 키움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고흥군, 체류형 야간 관광상품 개발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선정...주야간 관광연계 상품 운영

고흥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4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관광객 니즈를 반영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운영하고, 주야간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야간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고흥군은 녹동항 바다정원 옆에 위치한 미디어 돔 외벽을 미디어아트 효과로 리뉴얼, 대형행성 포토존과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랜드마크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또 밤하늘이 깨끗한 고흥군의 특징을 살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과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연계, 친환경 천체관측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특별한 경

험을 방문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녹동항은 매주 토요일 펼쳐지는 드론쇼, 바다정원, 소록대교 야경, 우주천문과학관, 녹동바다꽃 축제, 장어거리, 활어회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해 낮과 밤이 즐거운 곳으로 유명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광양시, 900명 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

### 지역 건강통계 바탕 보건사업 시행...가구 방문 1대1 면접 방식

광양시보건소가 16일부터 7월31일까지 표본가 구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광양시보건소는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1월 권역별 책임대학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조사 대상은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선정된 표본 가구의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이며, 조사 대상 가구에는 선정통지서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소책자가 전달된다.

조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4명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와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 등), 삶의 질 등으로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질병관리청에서 공표하고, 내년 초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서영욱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수집된 통계자료는 보건의로 계획수립과 우리 지역 보건사업 수행에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표본가구로 선정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